

보도시점 (온라인) 2026. 3. 12.(목) 12:00
 (지면) 2026. 3. 13.(금) 조간

주소정보산업 매출 7,249억 원 달성, 전년대비 8% '성장세 뚜렷'

- 행정안전부, 2025년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 결과 공표
- 전년 대비 매출 535억 원, 종사자 수는 4,278명 증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내 주소정보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2025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 결과를 공표했다.
 -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거나 관련 시설을 제작·관리하는 등 주소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국내 주소정보산업은 매출과 고용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개요 >

- ▶ (정의)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 (분류) 1.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2.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3.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 ※ 예)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주소 변경 대행, 주소 정제, 실내·외 내비게이션 등

구 분	내 용
조사기준일	'24. 12. 31.
조사항목	사업체·종사자 현황, 매출액 등 38개 항목
조사대상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는 1인 이상 사업체 및 관련 기관
기간/방법	'25. 6. 9. ~ 11. 15. / 조사표에 의한 1:1 방문 면접조사 원칙

- ▶ (결과 공표) 국가통계포털(KOSIS), 행정안전부 및 주소정보 누리집

① 매출 규모 전년대비 8% 성장, 7,249억 원 달성

- 2025년 주소정보산업 총 매출액은 7,249억 원으로, 전년(6,714억 원) 대비 약 535억 원(8%)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증명했다.
- 업종별로는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이 3,27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1,869억 원)과 ’주소정보 수집·처리업‘(1,205억 원)이 뒤를 이으며 기술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가능성을 보여줬다.

② 종사자 수 1만 4천 명 돌파, 상용근로자 비중 99%로 고용의 질 우수

- 고용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전체 종사자 수는 14,869명으로 전년(10,591명) 대비 4,278명(4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다.
- 특히 전체 종사자 중 상용근로자가 14,8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의 질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직무별로는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③ AI·로봇 연계 ’장소지능화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 확인

- 산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는 분야는 ‘데이터 지능화’였다.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 ’장소지능화 정보*‘ (45.2%)를 1순위로 꼽았다.

*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대상으로 위치 속성, 도로로부터의 최적 이동 경로를 구축해 이동체별(사람, 차량, 휠체어 등) 출입구 안내 지원

- 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량, 로봇, 드론 등이 건물의 출입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도화된 주소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다.
- 이어서 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주소를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지능정보(44.2%), 주소를 기반으로 드론, 로봇배송 등의 운영을 지원하는 이동지능정보(36.4%) 순으로 데이터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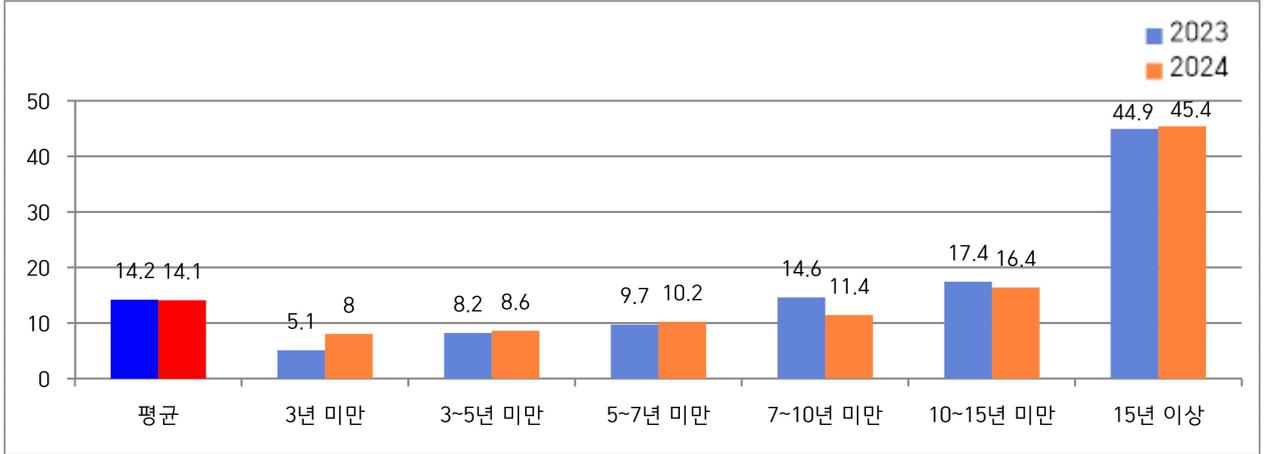
- 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우수 기업과 서비스를 찾아 널리 알리고, 기업들의 신규 사업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주소정보산업은 인공지능(AI), 로봇 배송 등 미래 성장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인프라”라며,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주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주소정보혁신과	책임자	과 장	박희건 (044-205-3551)
		담당자	사무관	엄경철 (044-205-3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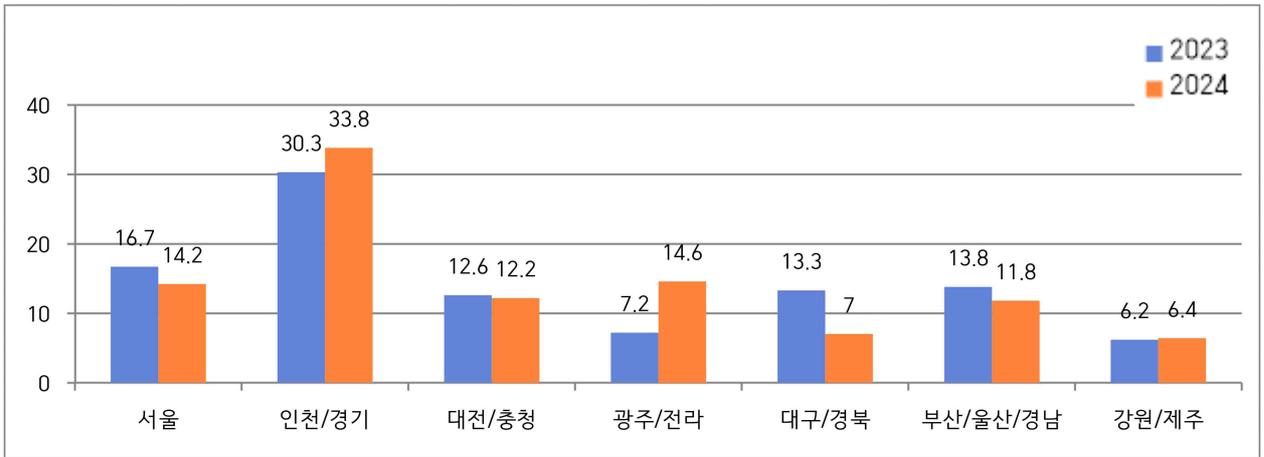


□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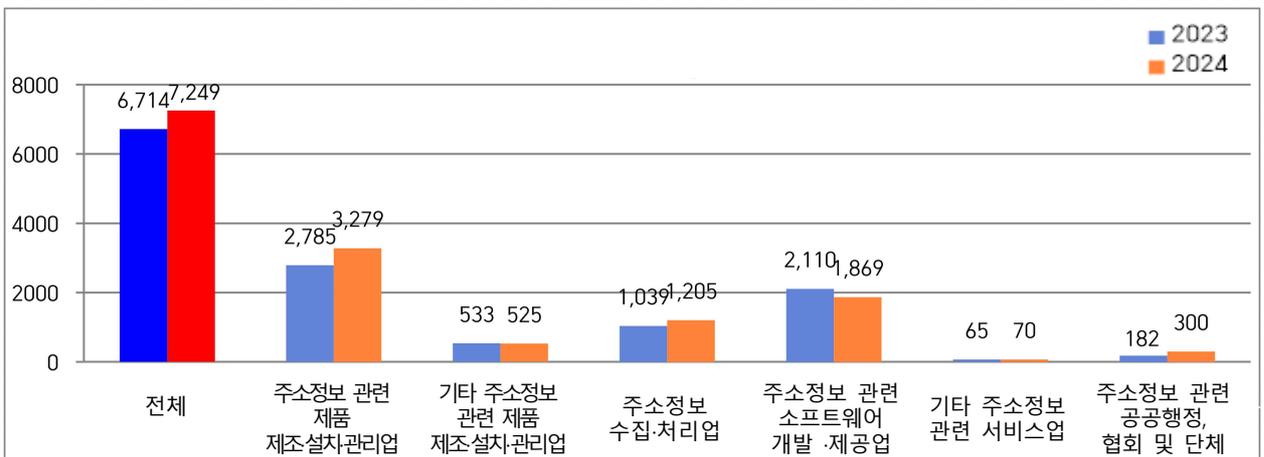
○ (운영기간) 평균 14.1년



○ (기업 소재지) 인천경기 주소정보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 서울 :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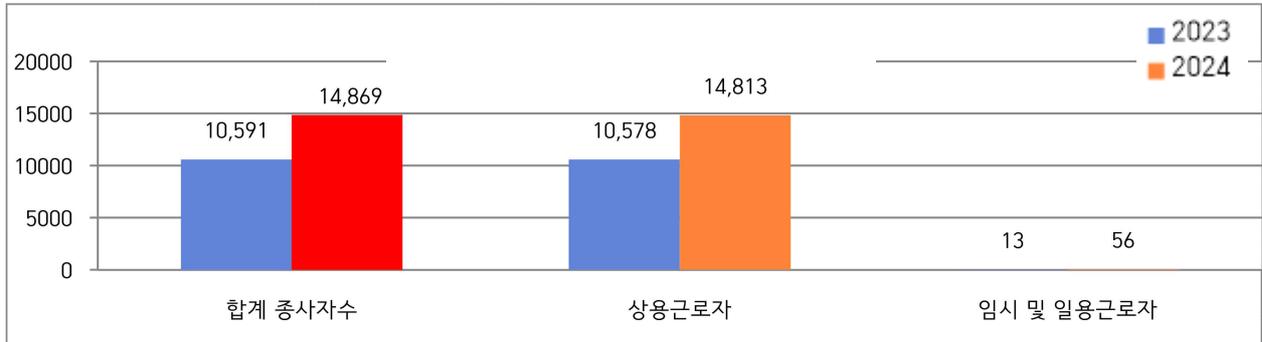


○ (매출액)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의 매출 상승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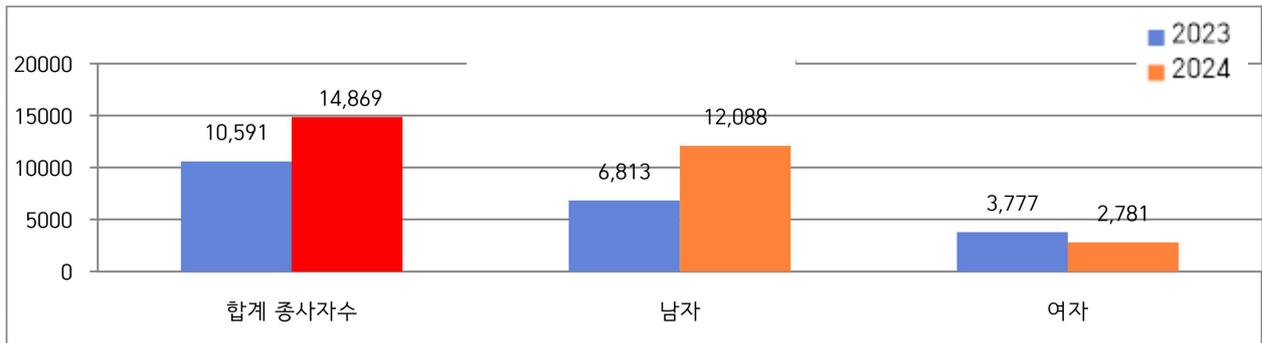


□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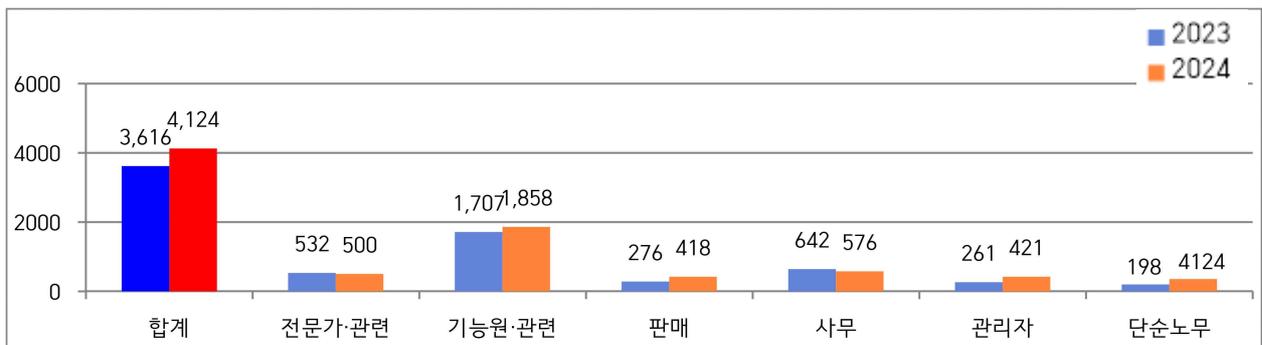
○ (전체 종사자) 상용근로자는 전년 대비 4,235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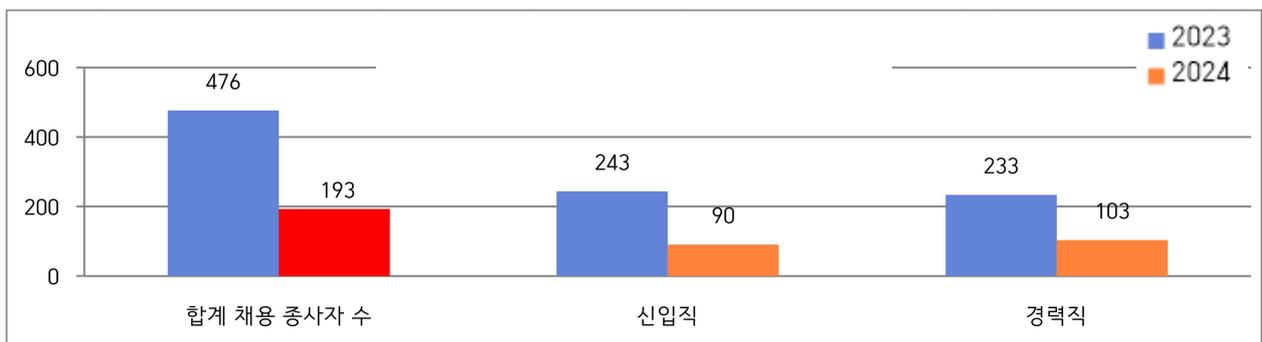
○ (성별) 남성은 증가, 여성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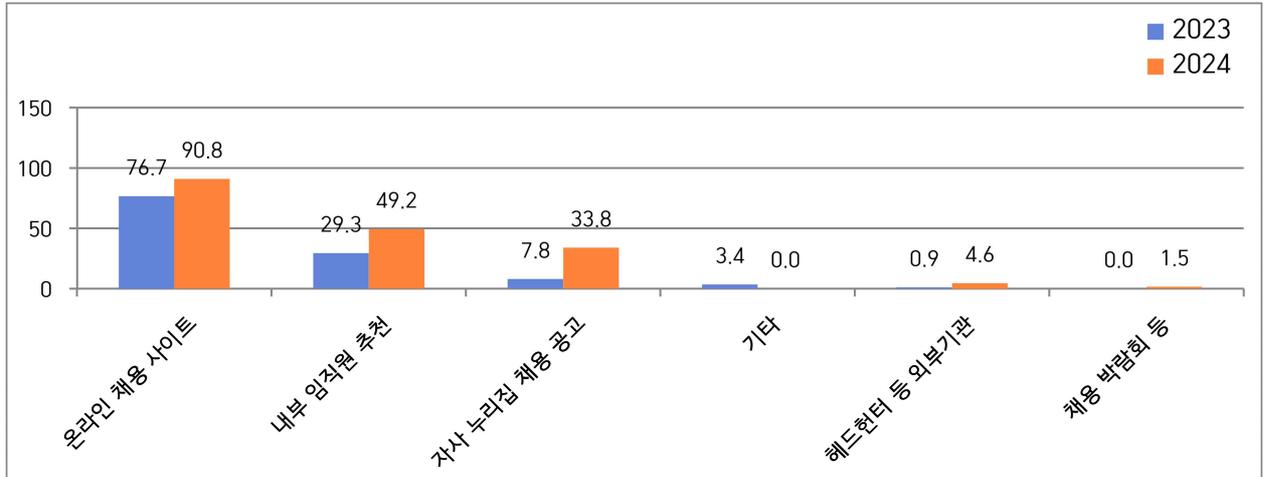
○ (직무별 종사자) 기능종사자, 사무종사자, 전문가 순



○ (신규채용) 경력직 중심의 채용, 신규 채용률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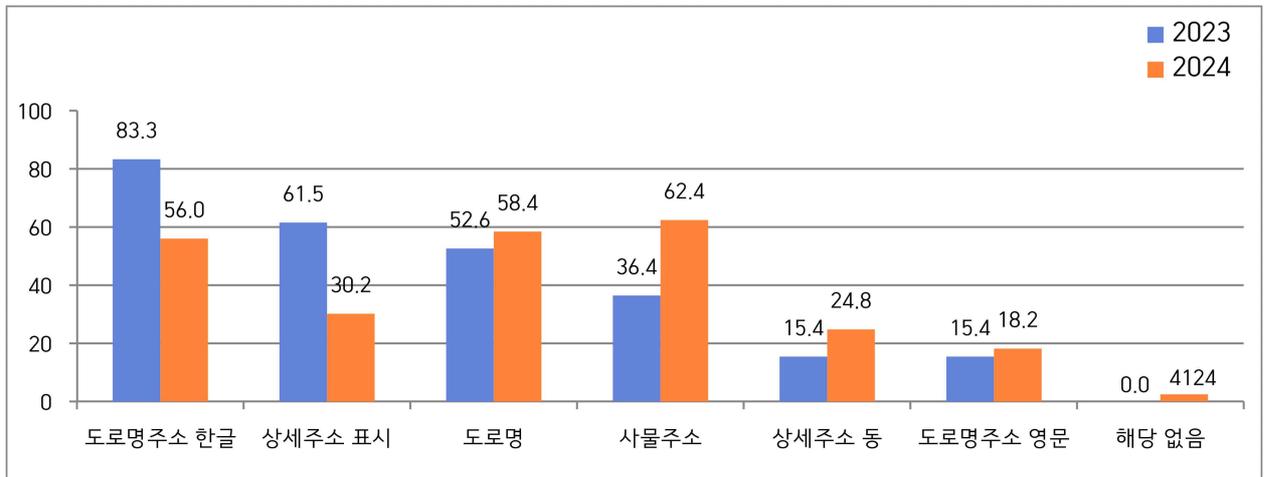


○ (채용 경로) 온라인 채용 사이트 중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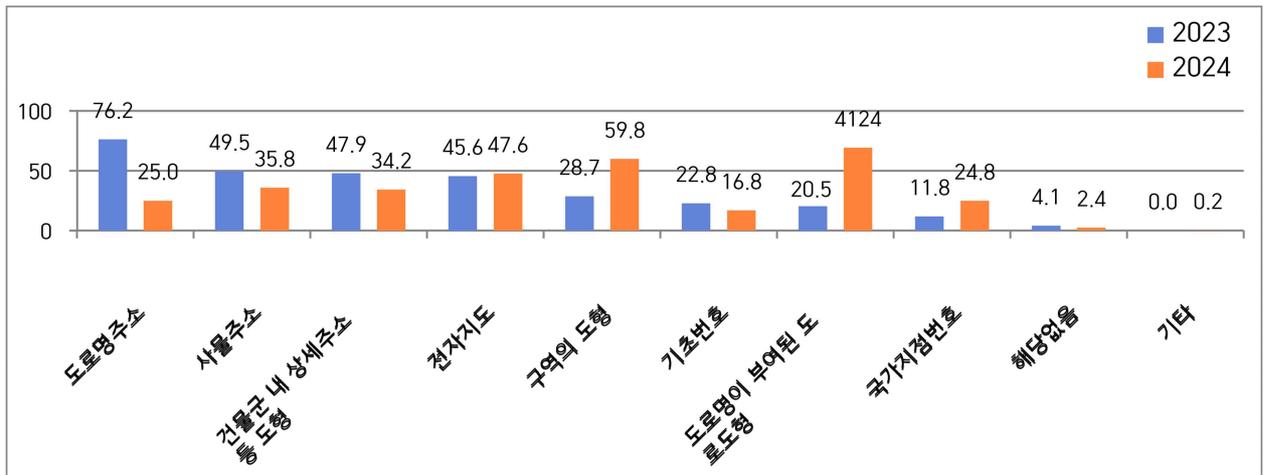


□ 주소정보 DB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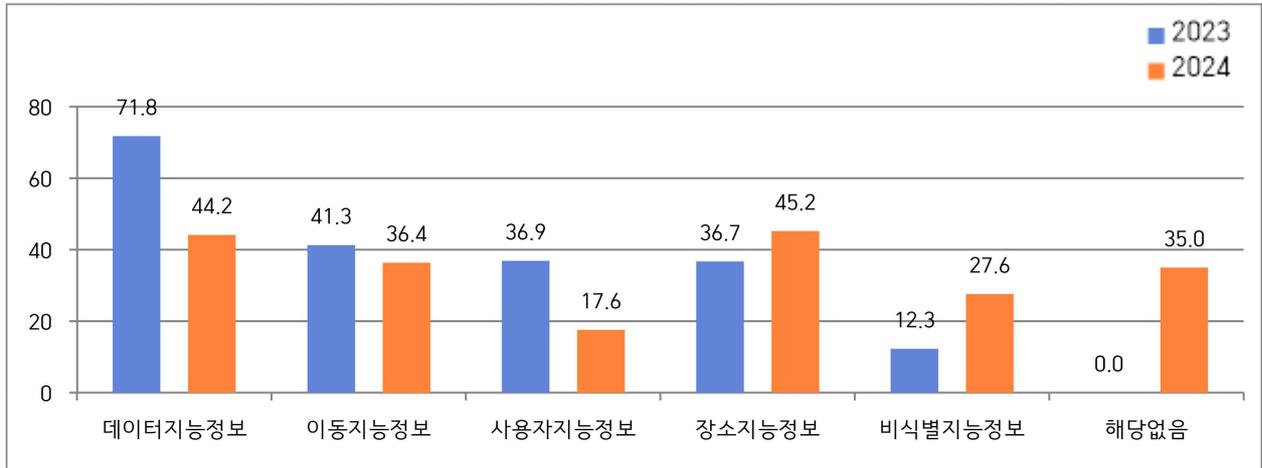
○ (공개하는 주소정보 중 필요한 정보)



○ (제공하는 주소정보 중 필요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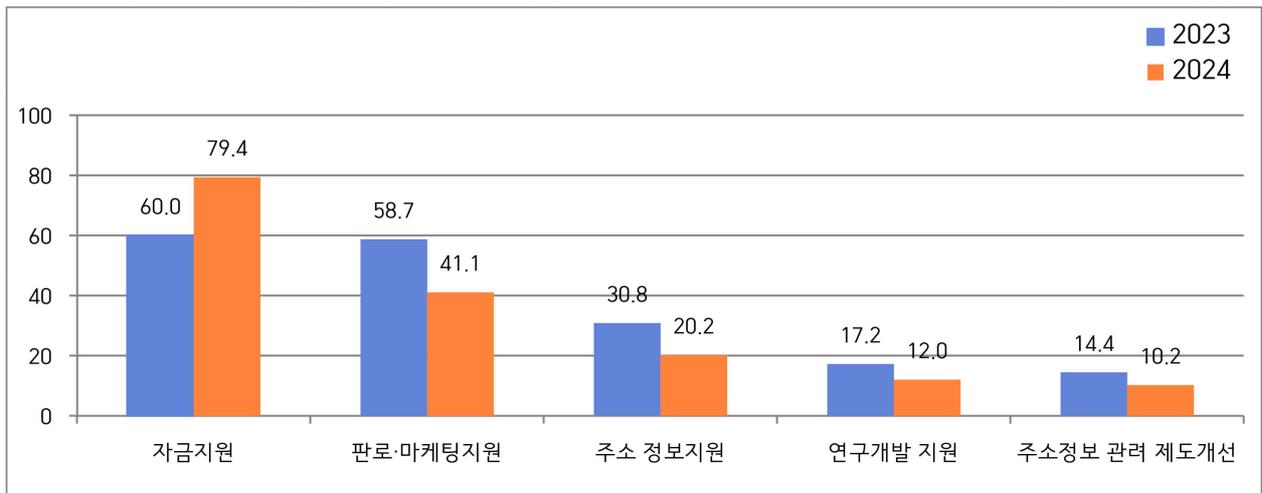


○ (주소지능정보 중 필요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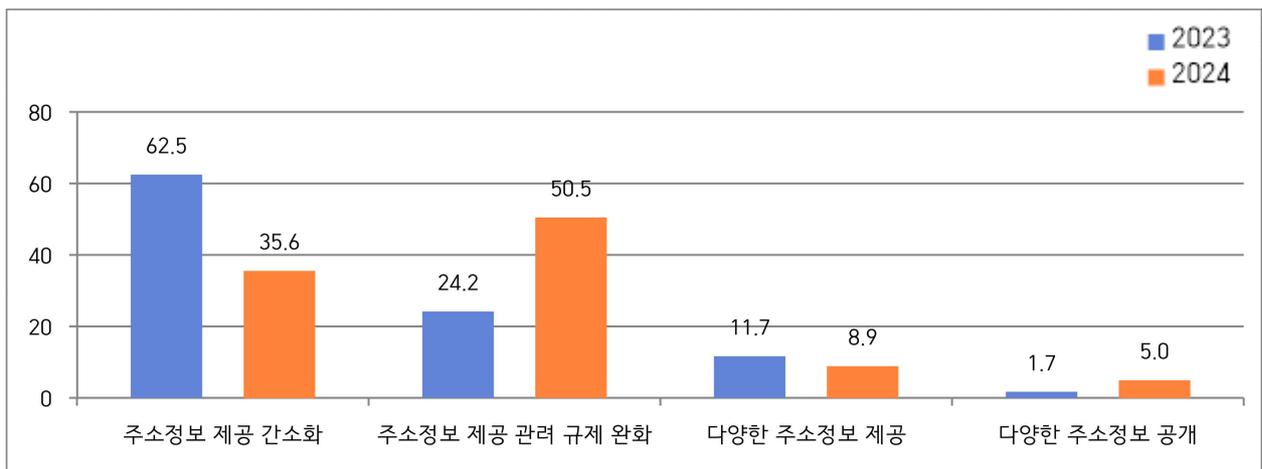


□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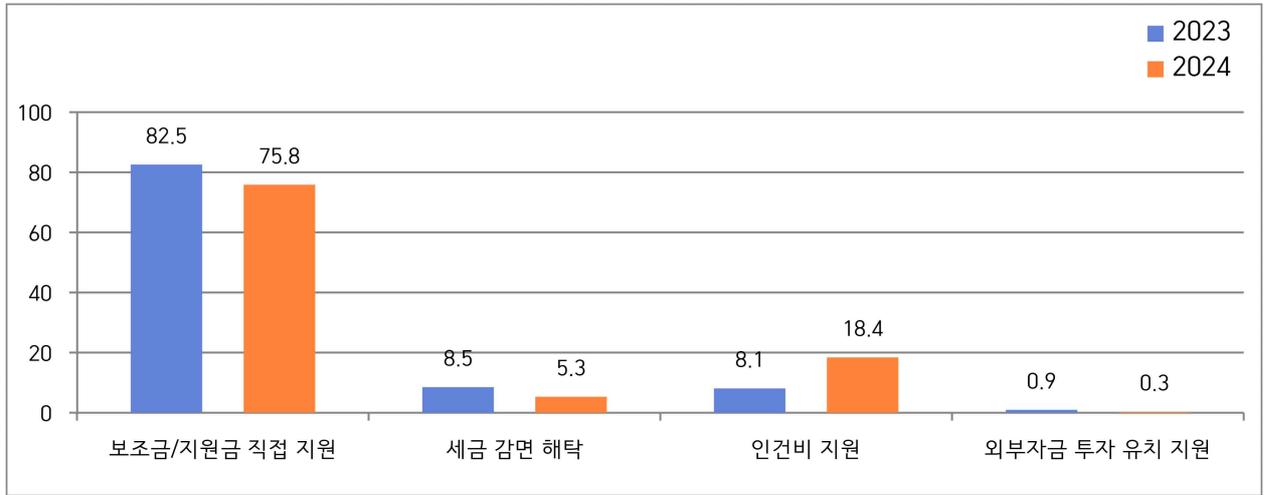
○ (산업 육성 및 진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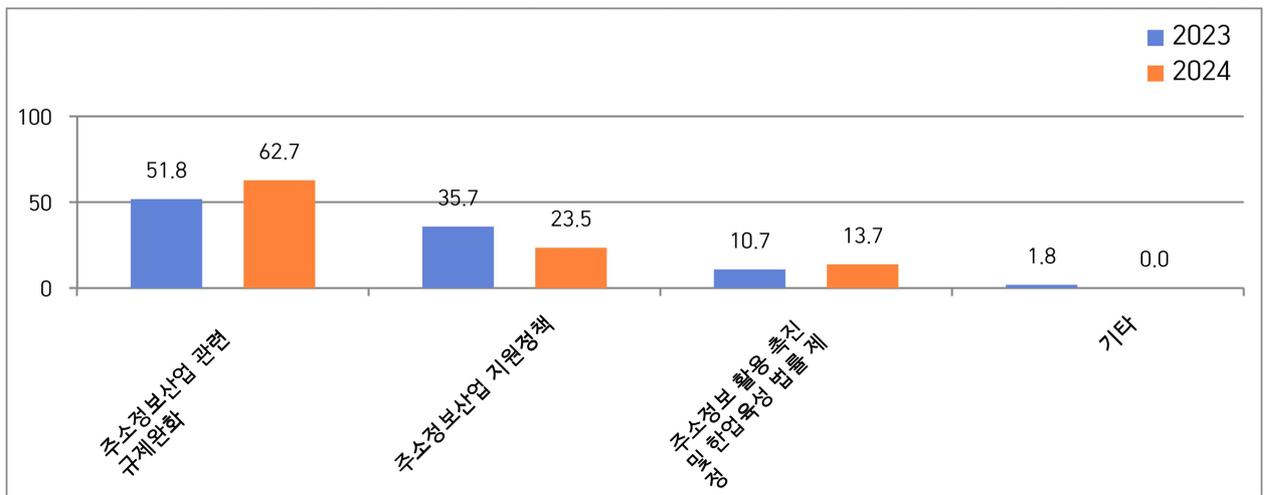
○ (주소정보 활용·제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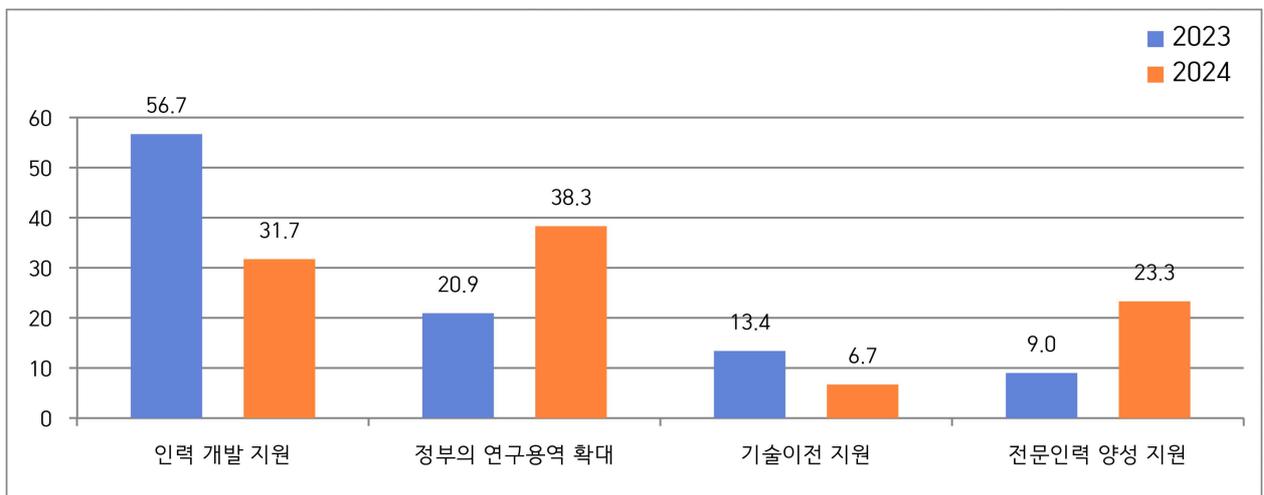
○ (자금지원 분야)



○ (법제도 분야)



○ (연구개발 분야)



붙임2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도로명판 제조·설치·관리업 그 외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도로명판 제외)
	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 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주소정보 수집·처리업	주소정보 수집업
		주소정보 처리업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주소정보 제공업
	기타 주소정보 관련 서비스업	기타 주소정보 관련 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